

# “혜암 스님 혼이 ‘잃어버린 상좌’ 처럼 반기실 듯”



정안주 구도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11>**  
제3장 원당암 미소굴 2

염화실은 생전의 혜암 스님이 상당법문의 초고를 잡거나 찾아온 수행자들과 다담(談談)을 나누는 방장실이었지만 지금은 원각 스님이 머물면서 정진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염화실도 혜암 스님의 작은 토굴이었던 미소굴 못지않게 스님의 체취가 남아 있을 터였다.

만법귀일(萬法歸一)  
송죽(松竹)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만법귀일은 스님이 수행자와 재가신도들에게 즐겨 주었던 화두이고,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 같았던 스님의 기풍을 상징하는 말이고, 일체유심조는 마음 쓰기(用心)를 당부하는 선언일 터였다. 대연 거사가 두리번거리자 원각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가까이 오세요.”  
원각 스님은 벌써 다락(茶卓) 앞에 앉아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원당암 입구에서 ‘있들이 파래지면 꽃보다 고와질 겁니다’ 하고 바람처럼 지나친 그 스님이었다. 대연 거사는 화려한 꽃보다 수수한 잎이 더 굵다는 스님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편안했다.

“차주전자나 다락이 참 정겹습니다.”  
“노장님이 사용하셨던 것들이지요.”  
대연 거사는 원당암에 온 용건을 말했다.  
“스님, 큰스님 2주기 때 원당암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뵈 노스님을 찾고자 왔습니다. 노스님은 저에게 출가하지 않고도 도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하하하.”  
원각 스님은 호기심이 생기는지 작게 웃고 말했다.  
“도인 되는 법이라... 노스님께서 무어라 하셨습니다.”  
“혜암 스님처럼 장좌불와만 하면 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하하.”  
원각 스님은 또 다시 웃으며 차를 따랐다.  
“차맛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잔 마셔 봐요.”  
“스님, 저는 5년째 장좌불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졸거나 잘 때도 있습니다. 다만 등을 바닥에 대지는 않습니다.”

“노장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주 좋아하셨을 겁니다. 노장님께서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을 제일로 찾으니까요.”  
“스님, 장좌불와만 하면 정말 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도(道)를 얻은 사람을 도인이라 하겠지요. 그런데 도란 허공과 같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오래 전 애굽나라 한 학인이 용성 스님을 찾아와 ‘도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용성 스님께서 ‘그대가 허공

을 그려낼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학인이 ‘허공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가운데도 없습니다.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이것이 허공이 아닙니까?’ 하고 대답하자, 용성 스님께서 ‘언제 허공이 그대에게 그렇게 말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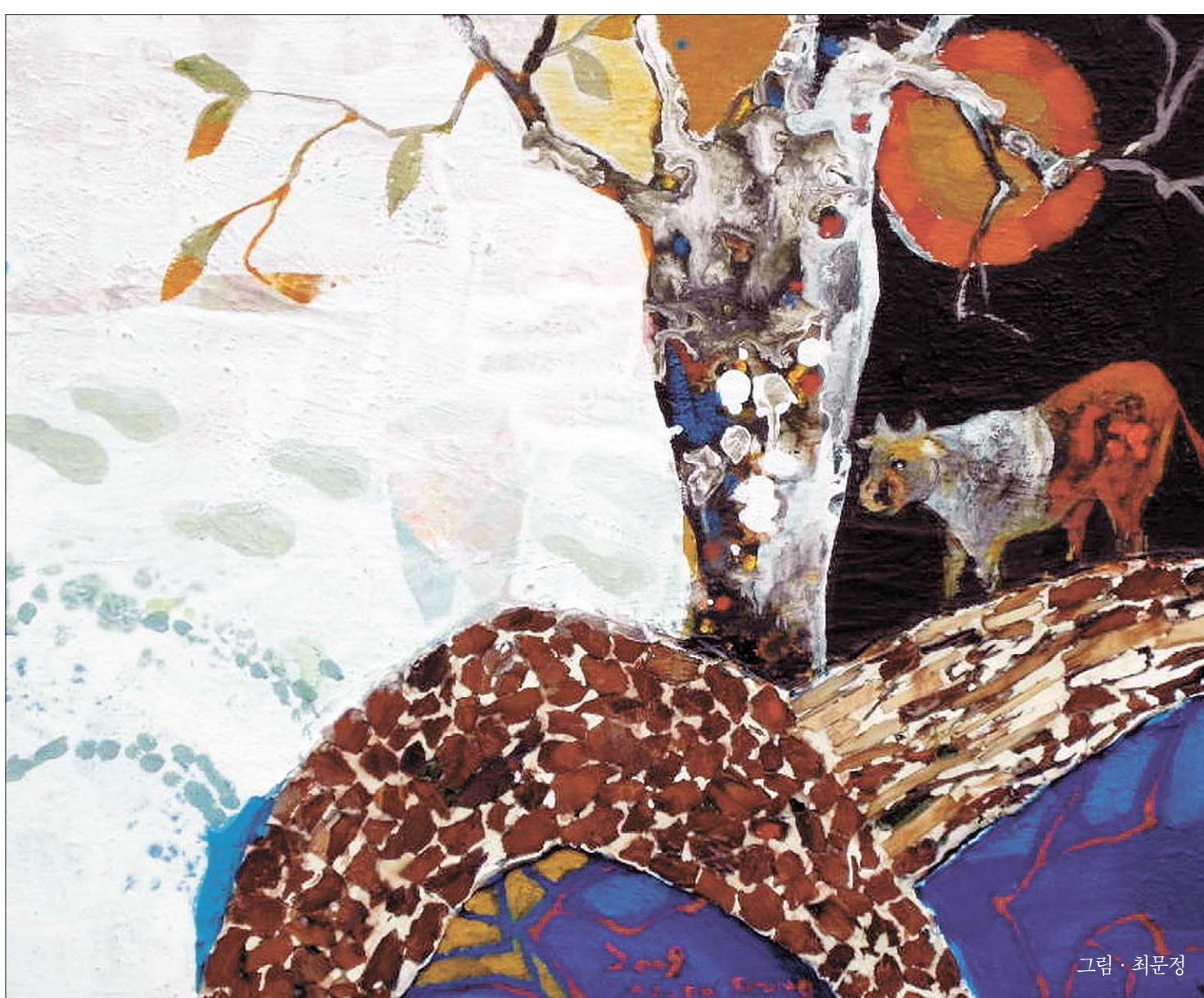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가. 그대가 허공을 화작(化作)한 탓에 허공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며 꾸짖었다고 그래요. 허공을 아무리 그럴 듯하게 설명해도 그것은 본래의 허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란 것도 마찬가지로요. 이치가 그러하듯 장좌불와 한다고 해서 도를 얻어 도인이 될 수 있거나 없다고 어찌 얘기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그 노스님께서 저를 속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대연 거사는 차를 마시다 말고 찾전을 놓았다. 원각 스님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그의 허물을 지적했다.

“노스님께서 도답해야 할 구경(究竟)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얘기한 것일 겁니다. 장좌불와는 하나의 방편으로 도를 구하려고 하는 시작이지 구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를 찾는 심우도에서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연 거사는 순간 혼란이 와 대답하지 못했다. 찾전을 만지작거리자 원각 스님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화제를 돌렸다.

“차를 바꾸어 마실까요. 보이차를 우려 보지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보이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지요.”

과일이 든 소반을 들고 시자가 들어오자 빛소리도 따라 들어왔다. 비를 맞는 경내의 풍경은 한층 차분했다. 염화실 앞의 두어 그루 다복술도 다소곳하게 비를 맞고 있었다.

“큰절 같은 데 가서 법당 벽에 그려진 심우도를 보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노장님께서서서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자 평생 장좌불와를 하신 것입니다.”

원각 스님이 또 차를 따랐다. 대연 거사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응수하자, 기분이 좋아진 듯도 했다.  
“그 노스님을 찾지 말아요. 그분을 찾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분은 거사님을 우리 노장님께 안내하기 위해 나타난 화신(化身)일 수도 있어요.”  
“저더러 혜암 스님을 만나 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장좌불와를 하고 있는 거사님이니 우리 노장님께서 잃어버린 상좌를 만난 것처럼 아주 반겨줄 겁니다.”

화신인 것이 분명했다.

대연 거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노스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혜암 스님의 혼을 만나는 것이 순리처럼 여겨졌다. 혜암 스님이 입적하는 동안 미소굴을 쳐다보면서 걸음을 멈추었던 것을 보면 전생부터 스님과의 인연이 깊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언고자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액자를 보세요.”

원각 스님은 만법귀일이 쓰인 액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는 그곳이 어디냐는 화두였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곳에 해답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혜암 스님께서서서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원각 스님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궁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려 했다. 다만 혜암 스님의 말씀 중에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 있다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려우니 좋은 인연 만났을 때 몸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애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회상했다.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에게 합장을 하고 일어났다. 그러자 원각 스님이 염화실 복도까지 나와 배려의 말을 했다.

“이곳에서 하루 이를 머물러도 좋아요. 원당암이 아랄로 노장님의 혼이 서린 곳이지요.”  
“스님, 그러겠습니다.”  
“그러세요. 원주스님에게 얘기하면 방을 배정해 줄 겁니다.”

염화실을 나오자마자 원각 스님의 시자가 우산을 들고 있다가 빌려주었다. 대연 거사는 종무소로 바로 가지 않고 원당 마당을 거쳐 해인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원당암에서 하룻밤 묵으려던 해인사 주차장에 둔 승용차도 끌고 올라와야 했다. 경내를 빠져 나가다가 원당암의 화장실을 들었다.

염화실에서 혜암 스님의 흔적들을 만나면서 다소 긴장했던 것이 분명했다. 소변을 보는 동안 풍선 속의 공기처럼 복부를 팽팽하게 했던 긴장감이 빠져나갔다. 그는 진저리를 치며 우산을 쓰고 산길을 내려갔다.

대연 거사는 무생교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내리는 봄비로 개울물이 조금 분 것도 같았다. 그는 사라진 그 돌맹이를 찾았다. 문득 자신과 한 순간의 인연을 맺은 그 돌맹이도 불성이 있을까 궁금했다. 그 돌맹이를 보고 팔귀를 알아듣는 생명인 것처럼 평생 장좌불와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 노스님을 만난다면 묻고 싶었다.

“스님, 무생교 밑의 돌맹이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無).”

그 노스님은 부질없는 망상 피우지 말라고 꾸중할 것만 같았다. 무정중생도 개울물성이라 했는데 왜 그 돌맹이만 불성이 없다는 것일까. 대연 거사는 그런 상념에 잠겼다.

“어째서, 왜.”  
그러는데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나 전라도 사투리로 말했다.

“공양할 시간인데 어서 올라가쇼잉.”  
노파는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져 몸이 거의 우산 속에 파묻혀 있었다. 노파의 강한 인상 때문에 대연 거사는 돌맹이의 상념에서 깨어났다. 홀연히 나타난 노파는 이목구비의 선이 굵어 잡초처럼 역세게 보였다. <계속>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 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기단에 만년위패를 모시으로써 생사가 돌 아닌 돌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 정진안내

- 철야 응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응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나가 죽고 죽고 나는 것이  
티끌 세상에 꿈이어서 원수나  
친한 이나 한길로 황천으로 가네.  
황천으로 가는 길은 어느곳으로  
통하기에 해가 가고 해가 와도  
가신 분 돌아오지 않네.

- 혜암대종사 법어

